

- 주요 뉴스: 트럼프 대통령, 불법이민 수용 거부한 콜롬비아에 25% 긴급관세 부과 지시
 - 美 증권거래위원회(SEC), 은행들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상 허용
 - BOJ 내년 봄까지 완만한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
 - EU,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자동차 산업 회복 대책 논의
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트럼프 대통령 관세부과 보류 및 정책 기대감 등이 영향
 - 주가 상승[+1.7%], 달러화 약세[-1.7%], 금리 하락[-1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대규모 AI 투자, 관세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
유로 Stoxx600지수도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일본 금리인상, 유럽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하락
유로화 가치와 엔화 가치는 각각 2.2%, 0.2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완만한 금리인하 기대 반영
독일은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3bp 상승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1.9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1/24일	1/17일	전일대비			1/24일	1/1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6,101.2	5,996.7	+1.74%	국채 금리 10y	미국	4.62%	4.63%	-1bp
	유럽	530.07	523.62	+1.23%		독일	2.57%	2.54%	+3bp
	중국	3,252.6	3,241.8	+0.33%		영국	4.63%	4.66%	-3bp
	일본	39,932	38,451	+3.85%	CDS 5y	한국	34bp	38bp	-4bp
	한국	2,536.8	2,523.6	+0.52%		중국	55bp	58bp	-3bp
환율	달러지수	107.44	109.35	-1.74%	위험 지표	EMBI+	353bp	360bp	-7bp
	유로화	1.0497	1.0273	+2.18%		VIX	14.82	15.97	-7.20%
	엔화	156.00	156.30	+0.19%		WTI유	74.57	77.88	-4.25%
	위안화	7.2411	7.3252	+1.16%	원자재	구리	432.1	436.9	-1.10%
	원화	1,431.4	1,458.5	+1.89%		금	2,770.6	2,703.3	+2.49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트럼프 대통령, 불법 이민 수용 거부한 콜롬비아에 25% 긴급관세 부과 지시

-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의 착륙을 거부한 콜롬비아에 25% 긴급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안에 이를 50%로 인상하겠다고 경고. 콜롬비아는 25% 맞불 관세로 대응
-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즉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행정부 내 이견으로 관세 부과 of 구체적 수단과 시점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Politico가 보도. 다만 트럼프 측 인사들은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분명하다며 두어 달 내로 보편적 관세가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
- 틱톡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한 달 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. 로이터통신은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보유하고, 데이터 수집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오라클이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
-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해법과 관련하여 요르단과 이집트 등 아랍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대거 받아들이고 가자지구를 정리하는 방안을 거론. NYT는 이런 구상이 200만명의 가자 주민의 미래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진단
- 로버트 브리거 EU 군사위원장은 사건임을 전제로 유럽인들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관심이 많으며 지역내 안정을 위해 미군 뿐만 아니라 EU 병력이 주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美 증권거래위원회(SEC), 은행들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상 허용

- SEC는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에서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SAB21 지침을 철회. SAB21은 '22년 SEC가 발표한 지침으로 디지털 자산,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들의 회계 처리 방법을 규정
- 이번 철회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번째 친 가상화폐 조치이며, SEC는 지난 21일 가상화폐 TF를 신설하여 관련 규제 명확화 등을 검토하기 시작

■ BOJ 내년 봄까지 완만한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

- 24일 BOJ가 기준금리를 0.5%로 25bp 인상한 후 우에다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서 확답하지 않았으나, 전문가들은 금리가 대략 반년 간격으로 25bp씩 추가 인상되어 내년 봄에는 1%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
-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일본 선거 일정(7월 참의원)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, 엔화 약세에 따른 고물가가 쟁점이 될 경우 선거 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

■ EU,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자동차 산업 회복 대책 논의

- EU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'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관한 전략대화' 첫 회의를 주재할 예정. 사전 공개한 추진안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탈탄소화 가속화를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
- 아울러 유럽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강화,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 모색, ESG 규제 의무가 유럽과 제 3국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가능성

■ 중국 작년 정부지출 증가율, 목표인 5%에 크게 못 미친 1% 미만 기록

-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지출액은 38.6조위안으로 3월에 책정된 예산보다 5% 적었으며,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실제 지출은 '23년 대비 1% 미만의 증가율을 기록. Bloomberg는 신규 주택건설 수요 감소,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금 감면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역량이 줄어들었다고 지적

■ 독일 정부, 금년 GDP 증가율 전망치 큰 폭 하향조정 가능성

- 독일 경제기후보호부가 오는 29일 연례 경제보고서를 발표하는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독일 정부가 금년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.1%에서 0.3%로 크게 낮출 것이라고 보도

■ 젤렌스키 대통령,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

-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협상 플랫폼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, 우크라이나가 빠진 협상에서는 정치적 결과만 나올 뿐이라며 우크라이나, 유럽, 미국, 러시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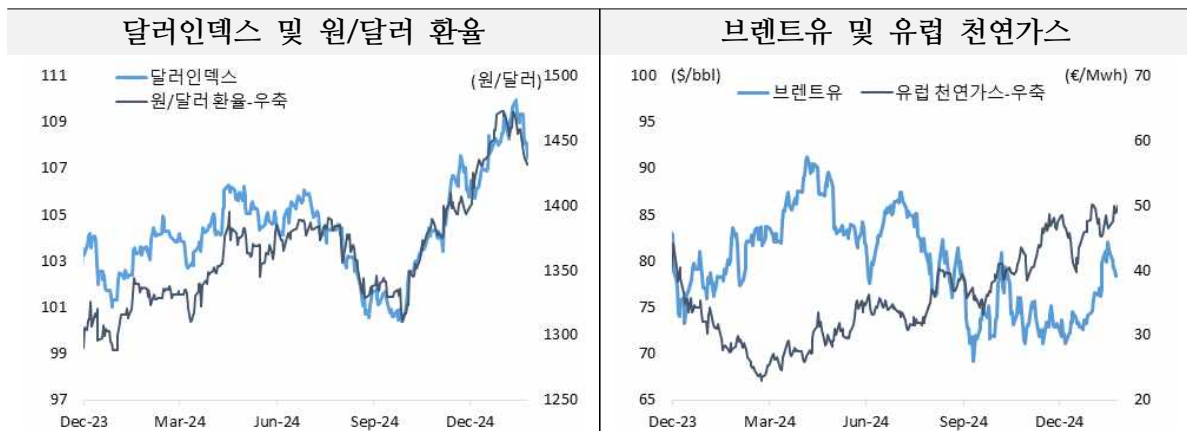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/27 현지시간 기준)

- 중국 1월 제조업 PMI, 독일 1월 Ifo 기업환경지수, 미국 12월 신규주택판매 등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ch@kcif.or.kr